

“생기 잃은 대구, 경쟁력·자긍심 되찾게 하고싶다”

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

① 김재수 · 대구시장 출마선언 전 농림식품부 장관



현재 위기 상황 타개할 능력자 필요 공항 이전문제 종합적 절차 거쳐야

정기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여당은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각각 ‘필승’하겠다는 의지를 새해부터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주 1회 진행해 유권자인 독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구의 경쟁력과 자긍심을 다시 찾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대구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장관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기를 잃고 희망을 살리지 못하는 대구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다”며 이 같은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대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저의 경험과 열정, 아이디어와 기획력, 중앙행정기관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대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그는 중앙행정기관과 한국농식품유통공사 경험을 살려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그는 대구 지역의 최대 현안인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구 시장이 되면 정부·대구시·경북도가 조기에 결론을 내도록 행정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재수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출마 이유가 궁금하다.**

▲오랜 경제침체와 정치적 상황 등으로 생기를 잃고 희망을 살리지 못하는 대구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다. 가장 많은 국가 지도자를 배출하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우리 대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쉬움도 컸다.

그래서 40년 공직생활에서 갖고 닦은 행정경험과 경영능력으로 ‘기업 마인드와 사업적 수완’을 발휘해 ‘대구를 살릴 능력자’가 되고자 한다.

제가 가진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먹고사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시민 사기도 높여서 대구의 경쟁력과 자긍심을 다시 찾게 하고 싶다.

제가 구상하는 250만 인구의 대구를 주변 도시들과 상생협력하는 400만 규모로 확대시키면 동북아 중심에서 일자리 걱정 없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명품 관광 도시, 세계로 열린 도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는 우리 대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고, 그것은 후손에 대한 죄악이다.

저의 경험과 열정, 아이디어와 기획력, 중앙행정기관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대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추된 시민들의 자존심과 기를 살리는 일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한다.

- 권영진 현 대구시장, 이재만 전 최고위원, 이진훈 수성구청장 등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제가 출마 선언 후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바닥 지지율은 낮지만 입소문이 좋게 나고 있어 기대가 크다.

대구에는 지금 시장 자리에 앉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낼 능력자가 필요하다. 저는 장관 자리에 오를 정도로 행정에 정통하고 경제학으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공기업 CEO를 맡아 실물 경제 역량을 발휘한 경제의 능력자라고 자부한다.

제가 가는 곳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화두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칭찬을 들었고, 관료사회에서는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아이디어 맨’, ‘추진력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평을 자주 들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재직 경험으로 지방행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며, 한국농식품유통공사 CEO를 역임하면서 실물경제를 가장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다.

제가 늦게 출발한 감은 있지만 종합 행정의 최고 자리인 장관까지 역임한 행정 전문가로서 기업 마인드와 사업적 수완을 가진 경제 전문가였다는 능력자로 부각되면 시민들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대구의 가장 큰 지역 현안은 통합 대구 공항 이전 문제인데.

▲대구 시민 대다수가 군사공항은 반드시 이전하되 민간공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하지만 공항 이전 토론회에 참석해 보니 이전에 대한 장점만 너무 부각시키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대구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재정여건, 중앙정부와의 협의, 시민의견 수렴 등 종합적 절차를 거쳐 존치 또는 이전의 결정이 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대구 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가 주변 시를 포함한 동북아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 할 때 의미가 있다. 종합적인 국가 안보의 틀 속에서 우리나라 군 공항의 전반적인 운영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 관계부처 협의, 예산확보 등 절차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목적이나 ‘한 건 주 의’로 250만 대구 시민과 300만 경북 도민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 대구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취수원 문제는 대표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몇 년째 끌여오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왔다면 이미 해결됐어야 한다.

시민들, 시민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충

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그런 조정이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

제가 대구 시장이 되면 정부·대구시·경북도가 조기에 결론을 내도록 행정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경선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에게 유리한 ‘물’을 만드려는 사람은 시장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없다. 경선이든 전략공천이든 그 기준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어떠한 룰도 따르겠다.

아마 대구 시장 선거는 내년에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 저는 그러한 방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서 보수의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 국민의 기대 수준에 알맞는 새로운 인물이 공천되리라 생각한다.

-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것이 공천이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제가 기본적으로 정무직으로 발탁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공기업 사장을 하고 있는 도중 연임이 됐고, 이후 장관을 하게 됐다.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인정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누구 편에 선다거나 그런 적은 없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CEO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직 중 이뤄낸 대표적 성과는 무엇

인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재임 시절에는 신유통경로를 확산하고 수급관리시스템도 개선해 엔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상 최대치의 농식품 수출규모를 달성했다. 또한 중국, 할라시장 등 전략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세계 최대 온라인 기업인 알리바바에 입점하고 에리토랑, 에이티움 등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일자리 창출에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임 시에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을 마무리하고, 중장기 농정개혁 기반과 쌀 등 농산물 수급 안정이나 AI 구제역 방역 등 현안을 조기에 해결해서 큰 위기를 벗어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밖에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식품 외식산업시대 개막, 실물경제를 체감하는 농정시책 추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대구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가.

▲대구에는 동촌초등학교, 경성중학교, 경북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등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꿈을 키우고 자란 고향이다. 대학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해 졸업 후 국가공무원으로 중앙부서에서 일을 시작하기까지 청춘을 바친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구를 떠나 중앙에서 내무부, 국세청, 외무부 등 정부부처의 요직을 거쳐 농촌진흥청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EO,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대구는 항상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사진/손진형 기자 son@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협의체 출범... 내달 합당

오늘부터 매일 비공식 협의 가져 지방선거 앞두고 인재 영입 박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일 통합추진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당 이언주·이태규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정운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2월 내 신설 합당 방식의 통합 완료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정당의 탄생을 염원하는 국민의 존엄한 뜻을 받들고, 구시대 전유물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합리적 개혁세력의 통합을 도모할 것”이라며 “양당의 단순한 합당이 아닌 신설 합당 방식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협의체 출범회의에서 양당 의원들이 손을 잡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태규·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을 취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3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당원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

해 2월 이내에 통합 완료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당에 공동 실무지원팀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설 합당 방식은 새로운 당을 만들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사실상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의원들의 당적은 그대로 승계된다.

이날 출범한 통합추진협의체는 4일부터 매일 비공식 협의를 갖고 세부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통합 시기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진행상황을 보며 통합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추진협의체에서 양당이 신설 합당 방식을 택한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순히 지분을 나눠먹는 형식이 된다면 국민이 여기에 동의하기 어

려울 것”이라며 “외부의 개혁세력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신당이 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드라이브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가능한 의원들부터 하고 있다”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반대파 의원들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반대파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도 동시에 관측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안철수 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당원)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사 표현 아니겠습니까”라고 강변했다.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발언”이라며 “안철수 대표의 독재적 사고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